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주요 변경사항

유럽연합, 비스페놀 A를 고위험 우려 물질로 분류

- 비스페놀 A란: 비스페놀 A(BPA: Bisphenol A)는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돼 온 화학물질로서, BPA는 예를 들어 물 디스펜서, 식품 저장 용기 및 재사용 가능한 음료수 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투명하고 단단한 유형의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에 사용됨. 이처럼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BPA 물질은 식품 및 음료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 물질을 간접적으로 섭취할 위험성이 높음. 그런데 만일 이 물질이 사람의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시키므로 흔히 환경호르몬으로 인식됨. 그뿐만 아니라 유럽식품안전청은 최근 BPA에 의한 알레르기성 폐염과 자가 면역 장애의 발병 가능성을 또한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는 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 비스페놀 A를 둘러싼 소송: ‘과연 비스페놀 A를 고위험 우려 물질(SVHC: a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로 보아야 하는가’의 쟁점에 관해 2018년부터 플라스틱유럽(PlasticsEurope) 측과 유럽화학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 측이 의견을 달리해 소송 제기로 이어졌음. 유럽화학청 측은 비스페놀 A를 고위험 우려 물질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데 반해, 플라스틱유럽 측은 그 지정 절차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임.

- 판결 결과에 따른 새로운 TDI 값 설정: 지난달 유럽 사법재판소 (EU court of Justice)는 최종적으로 BPA를 ‘고위험 우려 물질’로 지정하기로 판결 내림. 비스페놀 A가 내분비 교란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 내용임. 이러한 판결 결과에 발맞추어 유럽식품안전청은 BPA의 일일 섭취 허용량 (TDI: tolerable daily intake)을 과거의 수치에 비해 크게 낮춤. 유럽식품안전청 소속 과학자들은 기존의 TDI 수치(하루 체중 kg 당 4 마이크로 그램)를 약 20,000배 낮추어서 ‘하루 체중 킬로그램 당 0.2 나노 그램’으로 새로 설정함.
- 비스페놀 A에 관한 후속 논의: 비스페놀 A가 ‘고위험 우려 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비스페놀 A의 광범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전체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렇듯 BPA 시장이 서서히 축소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업계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학 물질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임.

*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874&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efsa.europa.eu/en/news/bisphenol-food-health-risk>; <https://www.clientearth.org/latest/press-office/press-list/eu-court-delivers-final-blow-to-plastics-industry-on-bpa/>;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62021CJ0119&qid=1682506011267>

2. 시사점

- 위의 판결은 지난달 3월 9일의 결정안임. 살펴본 것과 같이 이후로 비스페놀 A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연합의 여러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관련 성분 및 품목에서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서 EU 소속 국가들에 여러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관련 이슈의 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개정사항에 발맞추어 취급 상품을 제조 및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유럽연합, 살충제 옥사밀의 승인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

- 옥사밀(Oxamyl)이란: 과일과 채소의 곤충, 잎진드기 및 선충류를 없애는 데 쓰이는 살충제임. 옥사밀은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로, 이 계열의 살충제는 인간의 체내에 흡수될 경우, 잘못하면 신경을 건드려 다수의 기관이 과잉 활동하게 되어 결국 기능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2. 변동사항

- 옥사밀 승인 비갱신의 배경: 유럽식품안전청은 옥사밀의 기존의 승인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물질의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물질이 여전히 광범위한 작물들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당국은 옥사밀이 포함된 34가지 식단에서 만성적인 소비자 섭취 문제를 확인하였음. 특히 바나나, 감자, 멜론, 참외, 오이, 당근, 수박, 토마토, 호박, 파스닙, 우엉, 가지/계란 등 옥사밀 사용이 허가되었던 작물에서 급성 노출 우려가 확인되었음. 따라서 당국은 활성 물질 옥사밀의 승인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함.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3.098.01.0001.01.ENG&toc=OJ%3AL%3A2023%3A098%3ATOC; <https://pubmed.ncbi.nlm.nih.gov/36875866/>; <https://blog.naver.com/laundry13045/222961218162/>

3. 기타 주의사항 등

- 옥사밀의 승인이 만료되는 기간은 2023년 10월 31일까지며, 옥사밀을 포함한 기존의 농수산물에 시장에서 철수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2023년 9월 30일까지임. 따라서 적용일부터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옥사밀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을 엄수할 것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서 해당 살충제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 - 기준월(4월) 보고된 사례 없음

○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